

전남도,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총력

청주 오송·인천 송도 등 5파전
11개 기관 바이오 인재양성 협약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기관 공모에 나선 가운데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남도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추진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캠퍼스 유치 공모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현재 전남 화순을 비롯해 청주 오송·인천 송도·경북 안동·경기 시흥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 제안서 마감은 내달 2일이다.

전남도는 세계보건기구 인력 양성 사업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화순백신산업특구에 미래 블루바이오 성장 동력인 백신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백신 안전기술지원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도

사업'의 전남 유치를 위해 9개 대학과 바이오 인재양성 서면 업무협약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면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에는 전남도와 화순군,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초당대, 한국에너지공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내

외 바이오 인재양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화순 유치에 적극 협력하고 기관이 보유한 바이오 교육 시설과 기숙사, 연구진·기술 교류 등 우수 기반 시설을 국내외 바이오 인력양성에 공동 활용키로 했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은 지난해 2월 WHO가 국가 간 백신 불평등 완화를 위해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인재양성 사업이다.

전남도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전남 유치를 위해 지난 2월 '전남 바이오 인력양성 협의체'를 구성한데 이어 다국적 바이오 기업과 업무협약을 하는 등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수 인재 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이 백신산업특구의 우수 기반 시설을 활용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바이오 인재 양성 거점이 되도록 전남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구미시

재난관리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구미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재난관리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종합적 재난관리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29, 지자체 243, 공공기관 66)을 대상으로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5개 분야 43개 지표를 평가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 관리, 담당자 안전교육, 소관분야 유형별 재난 저감활동 등 "공통", "예방", "대응"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구미(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신안군

'신안천일염 체험센터' 개관

신안군은 22일 비금면 신안천일염 체험센터에서 박우량 군수를 비롯해, 관내 사회단체장 및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천일염 체험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신안천일염 체험센터는 총사업비 29억을 투입, 총면적 664㎡로 1층은 천일염 소금 체험장과 교육장, 2층은 전시장 및 베이커리카페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신안천일염 체험센터가 위치한 비금면 대동염전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및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근대 문화유산이며, 특히 비금수염전은 1호 염전으로 국내 갯벌염전의 사회문화적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신안(전남)=양수영 기자

고창군

농특산물 동남아 수출 확대

고창군 명품 농특산물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고창군은 22일, 23일 고창 농특산물의 동남아시아 수출확대를 위해 한국식품수출업체인 말레이시아KMT(대표 이마테오), 싱가포르 고려무역(대표 윤덕창)과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MT(주)(대표 이마테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분자주, 김, 즉석 냉동식품 등 연간 약 5만불 정도의 고창산품의 수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려무역(주)(대표 윤덕창)은 싱가포르 최대 한국식품 유통기업으로, 복분자가 공품, 고창 농산물 등 연간 약 5만불 정도의 고창산품의 수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전남)=양수영 기자

경주시

APEC 경주 유치 활동 펼쳐

경주시의회 2025 APEC 경주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경주시의회는 5월 초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해 APEC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위원장에 이동협 부의장, 부위원장에 김소현 의원을 선임했고, 김동해, 김종우, 최재필, 이경희, 정성룡, 정희택, 정준문 의원 총 9명이 개최도시가 확정될 때까지 범시민 역량을 결집하고 대내외 유치 공감대를 확산하며 정부 부처 건의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게 된다.

/경주(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경주시-美 PMC 그룹 800억 규모 투자 체결

안강 검단일반산단에
3.3만㎡ 생산공장 건립

경주시가 경북도와 함께 미국계 기업인 PMC그룹의 미화 6000만 달러(한화 800억원 상당)상당의 투자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 50명 규모를 골자로 한 공장 이전 및 증설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22일 경주시청 대의협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PMC코리아 이경련 대표를 비롯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PMC코리아는 안강읍 검단일반산업단지 3만 3010㎡ 부지에 2027년까지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경주 안강 검단일반산단에 들어설 PMC코리아의 새 공장에는 성장성이 높은 지방산아마이드 및 PVC 안전제가 주요 생산품목이 될 예정이다.



경주시와 경북도가 미국계 기업인 PMC그룹과 투자유치 MOU를 체결 기념 촬영 사진. (왼쪽부터)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PMC코리아 이경련 대표, 주낙영 경주시장.

PMC코리아는 경주공장 이전 및 증설이 완성되는 2027년에는 매출액이 18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주시는 PMC그룹의 투자를 계기로 안강 검단일반산업단지를 소재·부품 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발전시켜,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계획이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부산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개소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 해결

부산시는 23일 부산시청에서 원활한 기업 경영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고, 부산시와 지역 기업 간 소통 창구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김광명 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진양현 부산경제진흥원장을 비롯한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는 센터를 설립하게 된 배경과 추진 사업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원활하게 해소할 사례를 공유해 기업이 앞으로 센터를 적극

적으로 활용할 것을 유도했다.

앞서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 부산상의 주관 시장 초청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 소통 플랫폼을 공동 운영하자는 장인화 회장 제안을 받아들여 오늘 센터 개소에 이르게 됐다.

센터는 시청 1층 로비에 사무실과 접견실을 구축해 자리 잡았으며,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는 기업 민원 창구를 센터로 일원화해 접근성을 높였다.

센터는 ▲기업애로사항 접수·상담 ▲기업애로 발굴 현장 방문,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 분야 자문(컨설팅) 지원 ▲기업애로해소 협의체 구성·운영, ▲기업애로 현안·동향 설문조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규제 개선 건의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한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울산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기공식

폐기물 에너지화하는 친환경 소각장

울산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친환경 소각장이 새롭게 건립된다.

울산시는 23일 남구 성암소각장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김기환 시의회 의장, 이재익 국회의원, 환경부 이주창 폐자원에너지과장, 환경단체, 공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울산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은 남구 처용로 524(기존 소각장 내 유휴 부지)에 면적 6247㎡, 소각용량 460톤/일(230톤/일 2기) 규모로 오는 2026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1639억 원이 투입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울산성암소각장 1·2호기(소각용량 400톤/일)는 노후

화되어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재건립 사업이 완료되는 2026년 5월 이후 기존 시설은 철거된다.

새롭게 건립되는 울산성암소각장 1·2호기는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고발열량화에 대비하여 병행류식 소각로를 적용하여 소각시설의 성능 향상과 법적기준 보다 강화된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했다.

특히 소각과정에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하여 에너지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번 사업으로 경제성(KDI 검토)은 생산유발효과 1917억 원, 취업유발효과 1683명으로 나타났다.

기업체는 연간 11만 1000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연료 5만 2720TOE/년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이도석 기자

경남도지사, 청년 100여 명과 토크콘서트

청년 정책 발전 방향 등 의견 나눴

경남도는 지난 22일 저녁 창원 소재한 경남콘텐츠코리아랩에서 박완수 도지사,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 청년, 청년창업가, 청년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꿈을 향해 도전하라' 주제로 청년콘서트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청년콘서트, 도지사와 청년과의 대화'는 청년들의 고민과 청년 정책 발전 방향,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의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청년과의 토크콘서트.

박도지사는 기존 경남 주력산업인 기계, 항공, 원전산업 이외 문화·관광 산업 육성 및 활성화가 청년 유입에 필요한 주요정책임을 강조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고, 평소 생각했던 철학과 도정의 운영 방향을 청년들과 공유했다.

/경남=이도석 기자 metrobusan@